

구비설화 연구방법론에 나타난 쟁점 및 전망

심 우 장 (서원대)

- 1. 구비설화연구 반성
- 2. 연구방법론의 비판
 - 2.1. 구조주의에 대한 반성
 - 2.2. 현장론 및 기호학의 한계
 - 2.3. 비교문학, 여성주의, 현대구비문학 연구
- 3. 쟁점과 모색의 방향
 - 3.1. 연구방법론의 쟁점
 - 3.2. 모색의 방향
- 4. 전망

1. 구비설화연구 반성

구비설화연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지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면서 구비설화연구에 대한 지형도 몇 차례 변화를 겪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¹⁾ 그리고 지금이 바로 또 한 번의 지형 변화를 추구해

1) 다음과 같은 최근의 연구 동향 정리를 참조할 수 있다.

서대석, 「구비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광복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사진실, 「96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창간호, 국문학회, 1997.

박경신, 「97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2호, 국문학회, 1998.

이강옥, 「98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3호, 국문학회, 1999.

황폐강, 「연구사」,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설화문학관계 논저목록』, 단대출판부, 1999.

강진옥,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고전여성학회, 2000.

신동훈, 「99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4호, 국문학회, 2000.

야 하는 시기라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²⁾ 그러나 지형 변화의 욕망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그리고 변화의 동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에 있어서는 나름의 연구 관점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본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변화하려고 하고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 그 길을 찾는 것은 반성적 태도로서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저런 움직임만이 존재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성과가 미비하다는 데에 있다. 10년 전 한국구비문학회의 창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변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거기다가 10년 전에 비해서 구비문학의 학문적 위상이 질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한 해 평균 300편이 넘는 연구 성과라는 전에 없던 활발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방법론적으로 영역을 좁혀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위논문에서 연구방법론 항목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 행여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고 하더라도 학문적인 새로움을 보여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저 개별적인 작품에 함몰되어 나름대로의 의미만을 추출하는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 쟁점이 없는 연구풍토에 대해서는 반성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뚜렷한 학문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업적의 물량주의라는 외적인 조건까지 맞물리게 되어, 학문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쟁점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정충권, 「2000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6호, 국문학회, 2001.

신동훈, 「구비문학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 - 국어국문학』, 대한민국학술원, 2001.

천혜숙, 「구비문학연구 50년, 그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2002.

이지영, 「2001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2) 김현선, 「21세기 구비문학의 문화사적 위상」,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서대석, 「21세기 구비문학 연구의 새로운 관점」,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0.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구동향과 세기적 전환의 기대」, 『한국민속학』 32집, 2000.

심우장, 「현단계 설화 연구의 좌표」,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한국구비문학회, 2003.

설화연구의 지형에 대한 솔직하면서도 정확한 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설화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얻게 된 심사는 논쟁이 없는 연구작풍에 대한 일단의 우려이다. 근래 연구자의 증가, 글쓰기와 출판 속도의 증가, 자본주의적 경쟁체제라는 악화된 연구 조건 등의 영향으로 논문 생산은 이미 일종의 대량생산체제에 돌입한 것 같다. 게다가 구비문학은 다른 영역에 비해 텍스트가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대량생산에 적합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중략) 하지만 치열한 논쟁은 드물다. 기실 앞에서 문제나 논쟁 중심의 연구사보다 연구자 중심의 다소 나열적인 연구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연구가 논쟁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영역 중심으로 각개약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³⁾

개별적인 작품(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작품 중심의 또는 연구자 중심의 각개약진이 아닌 논쟁 중심의 연구 풍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러한 논쟁에서 방법론적인 쟁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구비설화연구에서는 방법론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별다른 쟁점이 없다는 것이 연구사의 최대 쟁점인 역설적인 상황에서, ‘위기’라는 말만 쏟아내는 연구사 정리가 아닌, 보다 생산적인 연구사 검토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을 찾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도, 개별적인 관심의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들을 모아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논쟁적 재생산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비설화연구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집, 동악어문학회, 2001.

2. 연구방법론의 비판

2.1. 구조주의에 대한 반성

구비설화연구에서 구조주의는 방법론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초창기 연구에서 구비설화연구의 과학화 - 구비설화의 문학적 연구 - 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후 최근까지 구비설화연구의 지배적인 방법론으로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확히 이 방법론이 공헌했던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학적 분석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형식주의나 구조주의자들은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구조에 주목하였다. 개별 작품이나 수용자의 체험에 상관없이, 시간성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형식이나 구조가 있으며 이것이 개별 작품의 창작과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인 형식이나 구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작품에서 공통된 형식이나 구조를 추출하거나, 여러 작품을 특정 요소들로 분해하여 원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객관적인 연구대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⁴⁾

분석 대상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주목한 작품 내면의 형식이나 구조(유형구조)가 개별 작품(각편) 혹은 수용자와의 관계, 그리고 작품의 시간성(혹은 역사성)을 소거하는 역할을 하여 구비설화 고유의 문학적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물론 개별 작품이 가지는 변이의 양상에 대한 주목이 많은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 “변이양상을 몇 가지 구조로 유형화하여 변화 자체를 평면적이고 추상적인 도식으로 재단”⁵⁾했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국 구조주

4)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1999, 21면.

5) 위 논문, 23면.

의가 구비설화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구비설화다운 문학적성을 발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지적이 다른 연구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한계의 하나로 구조의 정태적인 분석을 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레비스트라우스의 구조주의적 입장은 시간성, 역사성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되어진다.⁶⁾

일련의 구조주의 방법을 사용한 구비문학 연구는 작품 내적 질서에만 천착한 탓에, 필연적으로 구비문학의 존재 기반이 되는 작품의 발생 상황을 도외시켰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⁷⁾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비설화 연구는 주로 구조주의 분석 방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구비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비설화의 문학적 위상을 온당하게 정립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문학작품이란 내용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상기할 때, 유형에 속한 많은 각편들에 나타난 공통의미만을 추출하는 구조분석 방식은 문학작품으로서 설화가 지니는 독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⁸⁾

구조주의적 관점 혹은 방법론이 다분히 정태적인 분석을 추구한다거나 문학작품으로서 설화가 지니는 독립적 가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구비설화의 존재 방식이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성격보다는 역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⁹⁾, 각편들의 변이가 보여주는 문학적 가치를 온

6) 함한희, 「구비문학을 통한 문화연구 방법」,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322면.

7) 강성숙, 「이야기꾼의 성향과 이야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국문과 석사논문, 1996, 2면.

8) 이인경, 「구비 '열설화'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0, 2면.

9) 마셜 맥루한(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47면.

당하게 드러내줄 수 있어야 구비설화의 온전한 연구 방법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조주의의 유일한 미덕이었던 구조와 의미의 객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텍스트 분절에 의해서 얻어진 구조라는 것도 사실은 텍스트 해석을 위한 도식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얻은 의미라는 것도 지극히 자의적인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구조 분석이나 그것을 통한 의미 해석, 어느 곳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먼저 텍스트를 분절한다. 그런데 그 분절은 텍스트 안의 단위들이 갖는 관계를 추출해 내기 어려울 만큼 자의적이다. 텍스트는 분절되었지만, 그 분절 단위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는 바로 의미 해석을 시도한다. 이때의 분석은 텍스트를 조금 더 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만 자의적인 해석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도식화라는 방법을 활용했을 뿐이다.¹⁰⁾

구조주의의 접근방법이 구비문학을 문화연구의 자료로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신화나 전설의 내용이 전통적인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었다.¹¹⁾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기계적·습관적으로 행하여온 ‘구조분석’, 작중의 서사상황과 (가정된) 실제상황의 순쉬운 짝짓기,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의 편리한 절충 - 이러한 작업이 ‘연구방법론’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왔던 것이 저간의 실정이다.¹²⁾

‘편리한 절충주의’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러한 한계는 폭발적인 연구

10) 송효섭, 『설화기호학』, 민음사, 1999, 14면.

11) 함한희, 앞 논문, 324면.

12) 신동훈, 「설화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경지 - 송효섭의 『설화의 기호학』 서평」, 『고전문학 연구』 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증가의 이면으로 지적되었다.¹³⁾ 이것은 대체로 현장론이나, 단순한 구조주의와 변별되는 기호학적 방법론(구조주의적 기호학) 그리고 문화연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실상보다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다.¹⁴⁾ 하지만 초창기 구비설화 연구에 강력한 추진력을 주었던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성장기에 접어든 구비설화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서의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2.2. 현장론(연행론)과 기호학의 한계

구조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은 연행 현장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졌다.¹⁵⁾ 그러니까 구비설화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로 자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성과 함께 현장성이라는 특징에 주목하여, 그 연행의 역동성, 창조성 등 상황 맥락과 관련된 의미자질들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비설화의 현장(연행)문학적 특성에 대한 이러한 주목은 구비설화가 가지는 독자적인 자질을 드러내는 데에 보다 유용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커다란 진전을 가지고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⁶⁾

13)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 유형 하나를 잡아서 자기 나름대로 구조를 설정해서 분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다음,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고유한 사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신동훈(『구비문학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 - 국어국문학』, 대한민국학술원, 2001, 221면)은 이에 대해 “수백 수천 편의 연구들이 특별한 방법론적 고민 없이 틀에 박힌 방식으로 ‘구조분석’을 시행하거나 또는 드러난 사실에 대한 일상적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적 확대라는 현상의 이면적 실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14) 김현자, 「신화 연구방법의 모색을 위한 성찰」,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307면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조주의가 이항대립이라는 객관적 사고의 틀을 통해서(특히 레비스트로스) 우리에게 무지 상태로 남아 있던 설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이전에 우리가 부조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내버려두었던 설화적인 사고에 들어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점에 대해서는 의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15)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11-18면.

16) 김현선, 「현단계 민요 연구의 좌표」,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96면.

앞 장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구술예술을 연행중심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연행을 단지 어떤 텍스트의 단순한 재생(再生, reanimation)으로 이해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연행자의 특정 연행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연행론자들은 어떤 고착된 텍스트 개념에 집착하여, 현재 연행되는 구술전통들을 원래의 순수한 원형에서 변질된 것으로 보며 가치절하하는 일을,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이고 낭만적인 태도로 비판한다. 또 전사가 무엇을 포함하든, 규정된(definitive) 텍스트의 개념은 구술시학 연구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¹⁷⁾

현장론적 관심은 기본적으로 구비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게 하였다. 줄거리 위주의 고정된 텍스트 개념에서 벗어나 연행의 상황과 함께 하는 ‘과정으로서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비문학의 ‘문학적’ 성격보다는 ‘구비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증대된 관심은 이전에 주변화 되었던 자질들, 예를 들면 지속성에 대한 변이성, 공동성에 대한 개별성, 고착성에 대한 즉흥성 등이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였다.¹⁸⁾

그러나 이상과 같이 ‘설화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목표 아래 의욕적으로 도입되었던 현장론적 연구 방법은, ‘구비성(혹은 구술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 자료를 풍부하게 얻을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논리적인 분석 틀의 부재라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방법론 도입 초창기부터 줄곧 지적되어 왔는데¹⁹⁾ 특히 최근에는 연행 현장이 고갈되어 간다는 지적과 함께 좀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많아졌다.²⁰⁾ 전통 구비설화의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는 연행 현장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앎고 설령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자료나 연행의 성격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행 현장이 줄어들거나 변질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론적인 성찰을 통해서 현장의 정보를 보다 요령 있게 다

17) 윤교임, 「미국의 구술예술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263면.

18) 위 논문, 265-266면.

19) 임재해, 「설화의 현장론적 연구」, 영남대 국문과 박사논문, 1986, 3면.

20) 이인경, 앞 논문, 2면과 김현선 앞 논문, 96면 참조.

루어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최근의 현장론적 연구 성과를 보면 개개의 현장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정보를 나열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현장조사가 곧 현장론일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연행된 구비문학 자료의 변이를 이야기판이나 노래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연행된 구비문학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정도에서, 현장론적 방법의 고민이나 부담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현장의 자료만 가져와서 다른 현장론, 거기에다 연행자, 연행현장, 전승현장의 정보를 가미한 정도의, 이른바 명색만의 현장론적 접근이 많았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현장의 개념이 자료 해석을 위한 정보의 차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²¹⁾

그러면서도 하나 염려되는 것은 현지조사 자료를 다루면 곧 현장론적 연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작품 줄거리에 따라 자료를 순서대로 토막 지어놓고 구조분석을 했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²²⁾

현장론이 방법론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계와 분석모형의 확립이 필요하며, 연행과 전승의 역동적 원리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다시 말하면 현장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현장론적 연구라는 가면을 쓰고, 자료의 제시와 열거에 의한 민속학적 실증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²³⁾ 동일한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구조주의가 추구했던 문학적 분석과 의미의 구명이 여전히 주목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

21) 천혜숙, 「구비문학연구 50년, 그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2002, 533면.

22) 임재해, 「민속학 연구방법론의 전개」, 최인학 외 편,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28-29면.

23) 김현선, 앞 논문, 96면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도 한다.²⁴⁾ 현장론적 연구라고 표방한 많은 논의에서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구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표층적인 의미를 교과서식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하다.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또 하나의 방법론이 기호학이다. 구조주의 기호학, 혹은 문화기호학²⁵⁾이라고 명명된 이 방법론은 특히 구조주의의 자의적 해석과 추상적 환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구조를 의미와 분리해서, 구조로부터 의미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며, 사실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구조는 구조일 뿐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의미론적 구조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 특정 해석자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비설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모형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이고 대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을 향해 열어두어야 한다는 논리이다.²⁶⁾

필자가 생각하는 문화기호학은 대체로 약호의 기호학과 해석소의 기호학을 통합하여, 약호를 기술하되, 그것이 곧 나의 해석임을 전제함으로써, 약호가 얼마든지 새롭게 기술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담론의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²⁷⁾

구조주의 기호학은 구조주의에서 소홀히 여겼던 역사나 사회 현실의 컨텍스트를 텍스트화 하여 포괄하고(텍스트와 맥락의 생산적 통합), 구비설화의 특성인, 구조가 갖는 잠재적 역동성이라는 구술성의 시학을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적 기술이 실제적으로 일

24)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구동향과 세기적 전환의 기대」, 『한국민속학』 32집, 2000, 289면에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문학적 분석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 하였다.

25) 송효섭, 『삼국유사 설화와 기호학』, 일조각, 1990 ;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송효섭, 『설화기호학』, 민음사, 1999.

26)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32-33면.

27) 위 논문, 19면.

마나 가능할 것인가이다.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텍스트의 무한한 생산성을, 텍스트와 그것을 둘러싼 맥락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타당한 방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²⁸⁾

구조주의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 기호학적 방법론은 그 핵심으로 여겼던 ‘텍스트의 무한한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뚜렷한 전망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텍스트의 구조나 기호체계를 분석하는 작업으로써는 아무래도 이러한 전망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하다.²⁹⁾

2.3. 비교문학연구, 여성주의, 현대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과제³⁰⁾가 제시된 이래로 구비설화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한 방안으로 비교문학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구비설화 연구에서 문제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구조주의와 현상론의 틀에서 정제되어 있던 설화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하겠다. 초기에는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시공간적 배경, 내재된 관념 등을 비교하여 한국적인 특성을 밝히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³¹⁾, 최근에는 동아시아라는 큰 단위에서 설화의 보편성을 탐구하려는 차원으로까지 비약했다고 할 수 있는데³²⁾, 이는 연구의 큰 진전이

28) 송효섭, 『설화기호학』, 민음사, 1999, 241면.

29) 신동훈, 「설화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경지 - 송효섭의 『설화의 기호학』 서평」, 『고전문학연구』 18집, 고전문학회, 2000.

30) 서대석,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과제」, 『구비문학연구』 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31) 서대석,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문학회, 1992 등.

3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계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7 ; 최원오,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1 등.

라고 할 수 있겠다.³³⁾ 구비설화의 보편성이 비교문학연구의 전제 역할을 하고, 그것의 특수성이 연구의 목적으로 기능하다가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비교문학적 연구가, 굵직한 연구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설화 연구의 한 중심축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 나간 것도 사실이지만³⁴⁾,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 역시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개별적인 작품비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⁵⁾는 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특히 “동일 주제나 모티브들, 또는 유사한 성격의 신들의 비교 분석 이전에, 먼저 개별 신화들의 연구가 역사,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다른 문화적 실재들과 함께 고려되어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는 점이 강조되곤 한다.³⁶⁾ 비교가 이루어지는 상대 작품의 컨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대부분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최근의 비교문학적 연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역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다음의 지적을 보기로 한다.

이 흐름(비교신화연구 : 인용자)은 타민족의 신화와 한국신화를 비교하여 同差를 추출함으로써 한국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그것 자체로 나름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동차를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아울러 존재한다. 요컨대 비교연구가 보편성은 보편성대로 특수성은 특수성대로 ‘이론화’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³⁷⁾

33) 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집, 동악어문학회, 2001 참조.

34) 이에 대해서는 최원오, 「구비문학의 외국문학 수용 연구사 검토」, 『고전문학연구』 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에 잘 정리되어 있다.

35) 위 논문, 479면.

36) 김현자, 앞 논문, 295면.

37)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7, 3면. 비슷한 주장이 최원오, 「신화·서사시 연구의 반성과 전망」,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79면에도 제시되어 있다.

사실 구비설화의 비교문학적 연구가 엄격한 의미의 방법론적 고민에서 도입된 것이라기보다는 역시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구비설화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채택된 것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문학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이론화의 지점까지 연구의 성과가 도달하지 못한 것도 어찌보면 이러한 측면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구비설화연구에서 비교문학연구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분야’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비설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각 혹은 관점은 대체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여성주의적 시각 혹은 관점 역시 구체적인 방법론을 구비했을 때에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구비설화의 여성주의적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비판받고 있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 여성주의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여성은 이랬다’ 혹은 ‘여성의 이런 점은 훌륭하다’ 식의 소박한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³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여성주의라는 시각만을 가지고는, “충격 요법으로 제한된 자료”³⁹⁾만을 다루어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최근 들어 전통적인 구비설화 이야기관이 소실되어 간다는 위기감에 편승하여 현대구비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구비설화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의 특정 문화적 현상을 구비문학의 범주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⁴⁰⁾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개념의 차원을 넘어선 곳에 있다.

38) 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집, 동악어문학회, 2001.

39) 박종성, 「구비문학 연구 성과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2003 하계학술대회자료집』, 국문학회, 2003, 201면.

40) 박종성, 「소위 ‘현대신화’에 관하여」, 『한국구비문학회 2003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다시 말해 새로운 구비문학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성찰은 구비문학 연구자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이 장(場)의 본질에 대한 해명 없이 새로운 장에서의 구비문학, 혹은 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연구는 현상적 차원에서 본질론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양자를 아우르는 복안(複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¹⁾

현상적 차원의 연구만이 횡행하고 그것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전통 구비문학의 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고민이 없이, 전통 구비문학의 현상이 사라져 간다는 위기감에 대한 일종의 탈출구로서 확대 포장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복음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본질론 혹은 방법론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비문학 연구의 또 다른 외연을 넓혔다는 정도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 힘들 것 같다.

3. 쟁점과 모색의 방향

3.1. 연구방법론의 쟁점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쟁점 논의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비판을 위한 전제가 되었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개의 비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비판들에 내재해 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쟁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여러 논문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구비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란을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부분은 본질론

41) 조현철, 앞 논문 참조.

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소박하게는 구술문학 텍스트 연구가 문자로 정착된 텍스트를 읽고 연구한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경우⁴²⁾가 있는가 하면, ‘구비oral’와 ‘문학literature’의 결합 자체가 내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영미의 사례를 들어 ‘구술예술’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⁴³⁾이 있었고, ‘구비’라는 용어가 구두 발화의 역동적인 측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문화적 행위의 진술까지를 포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구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⁴⁴⁾도 있었으며, 연행 문학적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구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가 하면⁴⁵⁾, 용어의 모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관심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구비문학’ 대신 ‘구비전승’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⁴⁶⁾도 있었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어느 시각 혹은 개념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점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⁴⁷⁾ 이러한 용어에 대한 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 보다 적극

42)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20면.

43) 윤교임, 「미국의 구술예술 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241면. 남근우, 「일본 구술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구술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현설은 앞 논문에서 역시 비슷한 의미로 ‘구비전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44)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 월인, 2003, 15면과 송효섭, 앞 논문, 9면.

45) 류수열, 『판소리와 매체언어의 국어교과학』, 역락, 2001, 56면.

46) 조동일, 「구비문학의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11면.

47) 이미 윌터 J. 옹(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23면에서도 이미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우리(이 책과 같은 텍스트를 읽는 인간)는 대개 어쩔 수 없을 만큼 문자에 익숙해 있으므로, 구술적 전통에서와 같이 언어표현이 좀처럼 사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그다지 기분 좋게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오늘날은 이전만큼 빈번하게는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학자들은 과거에 ‘구전문학(oral literature)’이라는 아주 이상한 개념을 만들었다. 오늘날도 이 아주 불합리한 용어는 아직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말로 조직된 것의 유산이 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때조차도 그 유산을 쓰기의 한 변종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우리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사실을 점점 민감하게 간파해야 할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이 용어는 아직 사용되고 있다.”

적인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가이다. ‘구두 발화의 역동적 측면’, ‘문화적 의미’, ‘연행문학적 특성’, ‘관심 영역의 확대’ 등은 모두 앞서 살펴본 여러 방법론의 핵심 개념이나 의의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이다. ‘구두 발화의 역동적 측면’은 기호학에서, ‘문화적 의미’는 문화연구에서, ‘연행문학적 특성’은 현장론이나 연행론에서, ‘관심 영역의 확대’는 비교문학 연구나 현대구비문학 연구에서 각각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다. 아무래도 이것은 연구 방법론과 용어의 문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다양한 방법론에서 제기했던 구비설화 연구의 문제의식이 ‘구비문학’이라는 용어 문제, 즉 구비문학 혹은 구비설화의 지극히 본질적인 부분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⁴⁸⁾

사실 앞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방법론들이 방법론으로서의 분석틀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최소한 그것의 문제제기가 표면적으로나마 구비설화의 본질과 밀착되어 사교의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핵심에 용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술성’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론들에 대해, 구비설화 연구의 외연 혹은 분야를 넓히는 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의 근저에는 구비설화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구술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모종의 합의가 일정 부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법을 찾아야만 구비설화연구의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론은 구술적 특성이 연행 현장의 맥락에 주목해야만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호학은 구술성의 역동적 의미생산 과정에 대한 주목에서, 비교문학연구는 구술성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한 측면에 대한 관심에서, 여성주의연구는 텍스트와 저자 중심의 남성적 문학연구가 아닌 읽기와 말하기, 듣기를 모두 아우르는 구술적 문학 생활을 포괄하려는 노력에서⁴⁹⁾, 현대구비문학연구는 디지털 매체와 하이퍼

48) 윤교임, 앞 논문, 243면에서 이러한 용어의 문제가 방법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했다.

텍스트로 대변되는 현대적 구술성에 대한 관심⁵⁰⁾에서 각각 문제의식이 짙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구비설화 연구방법론의 핵심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구술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연구방법론이란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감을 옹골케 드러내 줄 수 있어야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조주의라는 문학적 연구방법론과 ‘구비문학’이라는 용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이것이 구비설화(구비문학)의 독자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구술성’을 밝히는 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갖는 문제의식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구비설화 작품은 현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장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소박함에서 벗어나, ‘연행 현장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분석되어야만 구비설화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구명할 수 있다’는 적극성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기호학, 비교문학연구, 여성주의, 현대구비문학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각각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구술성’의 구체적인 국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 그렇게 밝혀진 ‘구술성’의 틀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이른바 반성적 혹은 대화적 논의가 이어졌어야만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이론적 모색을 위한 문제의식과 결합되지 않아 그 결과가 연구사 속으로 흩어져 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앞의 비판에서 분석적 틀을 구비해야 한다, 혹은 이론적 모색이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작품이 갖는 ‘구술적인 특성’을 제대로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바람만 존재했을 뿐, 지금까지 구비설화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낸 구술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념적으로 구술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제시되면, 전달 체계의 쌍방향성이나 직접성이 거론되기도 했고, 사이버 공간과 관련해서는 비선형성이나 탈중심성

49)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2.

50) 심우장, 「통신문학의 구술성에 대하여」, 김종희 외 편, 『사이버문학의 이해』, 집문당, 2001.

이 논의되기도 했고, 그것도 아니면 옹의 저술⁵¹⁾에서 지적된 다양한 형태의 구술문화적 특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어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소득 없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⁵²⁾

구술성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기록문학의 특정 장르나 작품 속에서 구술성을 찾아내는 작업에나 소용되었지, 실제로 특정 구비설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소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러한 술어들이 결국 구비설화가 구술성을 지녔다고 하는 동어반복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구술성이라는 용어가 초보적인 수준의 개념 이상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술성에 대한 개념상은, ‘구술성이 연행자의 기억과 연행현장의 제반 조건으로 인한 즉흥성에 의해서 주도되며, 기록성은 기억보다는 치밀한 분석과 사고의 과정에 의해서 주도된다’⁵³⁾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 같다. ‘단순한 기억’과 ‘치밀한 분석’이라는 순진한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구술성의 발화맥락에 대해 다중채널, 집에서 습득, 높은 상호교호성, 시공간 공유, 낮은 텍스트 접촉, 낮은 정보 초점화 등을 열거하는 정도이다.⁵⁴⁾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구비설화를 분석하여 구술텍스트로서의 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방법론의 문제의식이 ‘구술성’이라는 핵심 개념으

51) 윌터 J. 옹(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2) 송효섭, 「구술문화와 기호학」, 한국구비문화학회 편, 『구비문화와 인접학문』, 박이정, 2002, 25-26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술성의 시학을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술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발화자와 수화자가 현장이라는 맥락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술적 발화가 맥락에 의해 얼마든지 기획되고 조절될 수 있음을 말한다. 발화자는 수화자를 늘 의식하므로, 수화자 중심의 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전제를 가지고 구술성의 시학이 기술될 것 같지는 않다.

53) 한국고전문학회에서 『국문학의 구비성과 기록성』라는 기획주제를 내걸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책(같은 제목, 태학사, 1999)으로 엮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말하는 구술성이란 이와 같은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 같다.

54) 김현주, 앞 책, 44면.

로 모아질 수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논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방법론이 암묵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집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구비설화 연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자문화의 기록성에 길들여진 눈으로는 구비설화의 맥락이 그 순수한 의미로 읽힐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 방법론이 대상으로 삼는 구비설화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방법론이 구비설화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개별 방법론이 구비설화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적인 전환이 필요한가도 물어야 한다. 결국 이 두 질문은 방법론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2. 모색의 방향

그러나 문학연구의 방법은 방법의 원리에 작용하는 철학, 방법을 추출하고 적용하는 대상인 작품, 방법의 당면한 문제점 및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떠나서 모색할 수 없는 것이다.⁵⁵⁾

여기에서 말하는 철학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마련될 수 있다.⁵⁶⁾ 이 제는 구비설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기존의 통상 학문이 누리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한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을 찾기란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시각에서 구비설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눈으로, 자료 분석을 위한 개념적 도구, 분석단위, 분석모형의 개발이 진진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⁵⁷⁾

55)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26-27면.

56)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구동향과 세기적 전환의 기대」, 『한국민속학』 32집, 2000, 246면.

57) 천혜숙, 「구비문학연구 50년, 그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2002, 545면.

우리들의 시대가 동시성(simultaneity)이라는 전자적 압력 때문에 구어적 그리고 청각적 양식으로 회귀함에 따라 우리는 지난날 여러 세기 동안 시각적 은유나 양식을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는가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⁵⁸⁾

어느 시기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떠나서, 대부분의 논자들이 구비설화 연구는 모름지기 정태적 분석이 아닌 동태적 분석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대부분의 논자들이 정태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컨텍스트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논자들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정태적 분석에서 동태적 분석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부분적인 혼란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태-동태를 구분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론적 모델이 부재하고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다룰 만한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구비설화에 대한 새로운 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전의 방식에 어쩔 수 없이 견인되어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에 대한 새로운 눈은 대개 연구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서는 연구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구비설화 연구에서 ‘현재 혹은 현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것 같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가 이 부분에서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본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소위 현대의 구비문학적 현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구비문학 연구에서 현대의 문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현대로 돌리자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구비문학의 테두리를 고전문학에 한

58) 마살 맥루한(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46면.

정시키지 말고 현대 쪽에도 관심을 두자는 것이 아니다.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전자적 압력)이 야기한 정보화 사회의 많은 문화 현상들이 예전의 구비문학과 비슷한 문화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데에서 방법론적 실마리를 찾자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 현상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제임과 동시에 전통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문자 인간의 인지의 가장 밑바탕에 이는 단층을 관통해 보면, 그곳에 20세기 예술과 과학의 최고로 발전된, 그리고 정교한 아이디어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우리 시대의 학자와 물리학자들에게는 흔히 하나의 수수께끼로 등장하곤 했다. (중략) 우리의 세계가 전기 기술에 의해 시각적인 것에서 청각적인 것으로 변화되면서 일상적으로 많은 감동을 혹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⁵⁹⁾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현대의 삶에 기반을 두고 현대와 전통을 관통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대의 어떤 문화 현상이 과거의 구비설화와 비슷하다느니 하는 1차원적인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비슷하다면 왜 비슷한지, 그리고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문화적인 요인(구술문화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러한 요인들에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분석 방법론을 궁구할 수는 없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다음으로 소위 구비문학의 현실적 위상과 관련된 ‘구비문학 위기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구비문학이라는 학문의 국지화, 연구의 물적 기반(이야기관)의 와해에 따른 위기감의 팽배가 구비설화 연구의 방법론적 전환

59) 마샬 맥루한(임상원 역), 앞 책, 59면.

60) 이러한 의미에서 신동훈의 일련의 논의(「이야기와 판소리의 관계 재론」, 『국문학연구』 1998, 국문학연구회, 1998)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현대의 문화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과거의 문학을 재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문학 원론에 대한 문제제기(「문화전환기에 돌아보는 문학의 개념과 위상」, 『민족문화사연구』 17호, 민족문화사학회, 2000)로 이어갔다.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하다.⁶¹⁾ 하지만 학문의 국지화나 물질 기반의 와해가 곧 위기의 실상이나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⁶²⁾

놀이터의 붕괴 또한 구비문학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집단성과 공동성을 해체해버렸다. 여럿이 함께였던 놀이의 양식이 혼자이기를 지향하는 경향으로 변모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노래와 이야기를 멀리하게 되었다. 이제 누구도 동요와 함께 흥놀이를 하지 않으며, 추석이 되어도 앞소리를 매겨 가며 강강술래를 하지 않는다.⁶³⁾

동요와 함께 흥놀이를 하지 않고 추석이 돌아와도 강강술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문학이 위기일 수는 없다. 설화 구연 현장이 사라진다고 해서 설화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으로 설화 구연 현장이 웬만큼 보존되었던 지난 시기는 그렇다면 구비설화 연구가 전성기를 구가했다면 그렇지도 않다. 현장이 존재하면 혹은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장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구비문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집단성과 공동성은 또 다른 변신으로 현대의 문화 어딘가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집단성과 공동성이 아닐 뿐이다. 우리의 집단성 혹은 공동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또 왜곡되어 있어서,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성과 공동성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현재적 삶의 주변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의 날을 섬세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구비설화의 본질을 읽어낼 수 있는 ‘눈’, 다시 말해 구술성을 제대로 드러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의 모색이 가

61) 김대행,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62) 서대석, 「종합토론 :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389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63) 김대행, 앞 논문, 15면.

능할 것이다.

방법론적 모색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안이한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추가하여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구비설화(문학)연구의 차원을 비약시키려면 학제적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비문학연구자들이 구비문학 자료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실증은 언제나 필요한 작업이지만 실증은 연구의 서론이지 본론이 아니다. 연구의 본론은 학제적 관심을 통해서 가능하다.⁶⁴⁾

방법론 자체가 대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포괄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특히 구비문학에서 요구하는 ‘구술성의 시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문의 문제의식을 참고할 만하다. 기호학이나 여성주의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읽어내려는 인류학⁶⁵⁾, 텍스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하는 텍스트 과학⁶⁶⁾, 뉴미디어의 출현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에 주목하는 미디어 이론⁶⁷⁾, 더 나아가 혼돈과 질서의 미묘한 지점에서 드러나는 창발의 비밀을 캐내려는 복잡계 및 네트워크 과학⁶⁸⁾, 글로벌 브레인에 의해 활성화된 창조적 진화의 비밀을 밝히려는 새로운 진화론⁶⁹⁾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64) 조현설, 앞 논문 참조.

65) 함한희, 앞 논문 참조.

66) 심우장, 「구비문학과 텍스트과학」,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67) 마샬 맥루한(임상원 역), 앞 책.

68) A. L. 바라바시(강병남, 김기훈 역),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동아시아, 2002.

69) 하워드 블룸(양은주 역), 『집단 정신의 진화』, 파스칼북스, 2003.

4. 전망

앞으로의 구비문학 연구는 연구대상을 확장해야 하고, 생활적·문화적 가치를 발견해야 하고, 민족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실생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⁷⁰⁾ 그런데 이런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롭고 탄탄한 연구 방법론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만큼 미래의 구비문학 혹은 구비설화 연구는 방법론의 모색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사 정리에서 최근의 어떤 연구도 특히 방법론적 측면에서 70년대 후반의 분석방법론⁷¹⁾을 뛰어넘는 연구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⁷²⁾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를 문제의식의 부재에서 찾았다.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 방법론의 모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구비설화 연구의 방법론적 전망은 오로지 구비설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잘 다듬어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구의 지형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구로서의 의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감이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시 구비설화 연구의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구 영역을 넓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구체적인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이야기판’이나 ‘이야기하기’의 원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구술성의 개별적 국면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운용되는가를 다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구비설화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⁷³⁾

70)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22-29면.

71)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72) 신동훈, 「구비문학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 - 국어국문학』, 대한민국학술원, 2001와 심우장, 「현단계 설화 연구의 좌표」,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73) 한국구비문학회의 향후 2년간 학술대회 주제가 ‘구비문학과 공동체’라고 한다. 구술문화와 구비문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학회 차원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

‘결실없는 정답’만을 추구하면,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논쟁은 사라지고 연구의 질적인 비약은 표면해진다. 너무 오랫동안 ‘결실없는 정답’ 속에서 안주해 왔다는 느낌이다. 이제는 ‘결실을 향한 모색’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시점이다.

K C I

참고문헌

- 강성수, 「이야기꾼의 성향과 이야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국문과 석사논문, 1996.
- 강진옥, 「여성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비문학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 김대행,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1999.
- 김현선, 「21세기 구비문학의 문화사적 위상」,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 _____, 「현단계 민요 연구의 좌표」,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 김현자, 「신화 연구방법의 모색을 위한 성찰」,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 월인, 2003.
- 남근우, 「일본 구승문에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 류수열, 『관소리와 매체언어의 국어교과학』, 역락, 2001.
- 박정신, 「97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2호, 국문학회, 1998.
- 박종성, 「구비문학 연구 성과의 비판적 검토와 전망」, 『2003 하계학술대회자료집』, 국문학회, 2003.
- _____, 「소위 '현대신화'에 관하여」, 『한국구비문학회 2003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 사진실, 「96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창간호, 국문학회, 1997.
-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 서대석, 「21세기 구비문학 연구의 새로운 관점」,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2000.
- _____,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과제」, 『구비문학연구』 1집, 한국구비문학회, 1994.
- _____, 「구비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광복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_____, 『종합토론 :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 _____,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7집, 한국고전문학회, 1992.
- 송효섭, 『구술문학과 기호학』,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 _____,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_____, 『삼국유사 설화와 기호학』, 일조각, 1990.
- _____, 『설화기호학』, 민음사, 1999.
- 신동훈, 『99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4호, 국문학회, 2000.
- _____, 『구비문학 연구』, 『한국의 학술연구 - 국어국문학』, 대한민국학술원, 2001.
- _____, 『문화전환기에 돌아보는 문학의 개념과 위상』, 『민족문화사연구』 17호, 민족문화사학회, 2000.
- _____, 『설화 텍스트 해석의 새로운 경지 - 송효섭의 『설화의 기호학』 서평』, 『고전문학연구』 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 _____, 『이야기와 판소리의 관계 재론』, 『국문학연구』 1998, 국문학연구회, 1998.
- 심우장, 『구비문학과 텍스트과학』,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 _____, 『통신문학의 구술성에 대하여』, 김종희 외 편, 『사이버문학의 이해』, 집문당, 2001.
- _____, 『현단계 설화 연구의 좌표』,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 윤교임, 『미국의 구술예술 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 이강욱, 『98년도 연구사 : 구비문학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3호, 국문학회, 1999.
-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 이인경, 『구비 '열설화'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0.
- 이지영, 『2001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8호, 국문학회, 2002.
- 임재해, 『구비문학의 연구동향과 세기적 전환의 기대』, 『한국민속학』 32집, 2000.
- _____, 『민속학 연구방법론의 전개』, 최인학 외 편,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 _____, 『설화의 현장론적 연구』, 영남대 국문과 박사논문, 1986.
- 정충권, 『2000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 『국문학연구』 6호, 국문학회, 2001.

- 조동일, 「구비문학의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구비문학회 2003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
-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 _____,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국문과 박사논문, 1997.
- _____,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집, 동악어문학회, 2001.
- 천혜숙, 「구비문학연구 50년, 그 성과와 전망」,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2002.
- 최원오, 「구비문학의 외국문학 수용 연구사 검토」, 『고전문학연구』 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 _____,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1.
- _____, 「신화·서사시 연구의 반성과 전망」,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 찾기』, 박이정, 2003.
- 한국고전문학회편, 『국문학의 구비성과 기록성』, 태학사, 1999.
- 함한희, 「구비문학을 통한 문화연구 방법」,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과 인접학문』, 박이정, 2002.
- 황패강, 「연구사」,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설화문학관계 논저목록』, 단대출판부, 1999.
- A. L. 바라바시(강병남, 김기훈 역),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동아아시아, 2002.
- 마살 맥루한(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월터 J. 옹(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 하워드 블룸(양은주 역), 『집단 정신의 진화』, 파스칼북스, 2003.

An Issue of Method in Oral Literature Researches

Sim, woo-jang

Researches of Oral Literature are increased very much in quantity, but at a stand-still in quality. Causes of it can be searched in many aspect, but I think that there is an important cause in the negligence of method. Specially method is the first essential in oral literary study. But it is hard to find a notable interest in method at recent researches. It is due to doing not exist of issues in researches.

Structuralism played an important part in bringing out many literary characters of oral literature. But recently it is criticized because it cannot bring oral literature's distinct characters into relief, that is to say 'orality'. Performance-centered approach or field-contextual study was started as a criticism of structuralism. But it is criticized because it doesn't have a firm theoretical base. That is, field work is not field-contextual study. Semiotic theory was also started as a criticism of structuralism. But it has difficulty in describing the latent dynamic structure of oral literature.

Recently, the comparative method is brought to the fore. But it is criticised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complete understanding of cultural context. And I don't think that feminism is rewarded with good fruits based on the theoretical interest. Contemporary oral literature study is the same. It is criticised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recent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 conclusion, these many methods does not play the role effectively. I think that it must be mere satisfied with territorial expansion of oral literature. The heart of these questions at issue is 'orality'. Therefore, I think that we must develop the methods that can show efficiently the distinct orality of oral literature.

к с і